

2023년 9월 시청자위원회 운영실적

방송국명 : 주식회사 연합뉴스티브이

1. 회의개최

연 번	일 시	장 소	참석인원				회의형태		
			시청자 위원 (참석인원 /총인원)	방송국		총 인원 (명)	대면	온라인	서면
				경영진 (명)	경영진 외(명)				
1	9.21. 15시	연합뉴스TV 12층 대회의실	9/10	2	1	12	○		

o 회의 참석자 명단

① 시청자위원 명단 : 손영준, 안호림, 허인순, 김희중, 서신석
진한수, 안성희, 이상현, 이성우

② 방송국 관계자 명단

- 경영진(대표(사장), 제작 및 편성부서 국실장급 또는 이에 준하는 직급) :
 보도본부장, 시청자센터장
- 경영진 외 : 시청자센터부장

2. 심의결과 및 조치현황

가.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방송 편성	방송프로그램					자체 심의규정	합계
	보도	교양	연예·오락 (스포츠)	기타	소계		
-	17	-	-	-	17	-	17

나. 사업자 반영

구 분	수 용	의견 참고	반 론	합계
건 수	17	-	-	17

다. 의견제시(시정요구)에 대한 조치내용

구 분	의견제시(시정요구)내용	조치내용	제시월
기타	<p>8.12일(토) 오전 10시경부터 일요일까지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서 기사 검색 서비스가 실행되지 않아서 기사 검색에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으면 홈페이지에 미리 이용 불편 안내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강건기 위원)</p>	<p>지난 8월 홈페이지 장애 인지 뒤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했고, 유지·보수업체와 협의해 장애 발생 시 이용 페이지에 자동으로 알림이 뜨도록 개선 작업을 완료(9월15일)했습니다. <23.9월 조치></p>	‘23.8월
기타	<p>뉴스 외에 홈페이지, App, 네이버 등을 통해 온라인 콘텐츠로 제공되는 뉴스피드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이슈를 좀 더 쉽게 이해하거나 연합뉴스TV와의 접점을 넓히는 좋은 수단이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뉴스피드로 제공되는 콘텐츠 중에는 다다를인터뷰, 현장잇슈, 배달잇슈, 월드잇슈와 달리 3분 증시, 월드&이슈, 출근길인터뷰 등은 뉴스의 일부코너를 모아서 제공하고 있는데, ‘경제읽기’, ‘기업기상도’처럼 카테고리화가 가능한 코너를 뉴스피드로 제공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필요하겠으나 이용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는 의견을 회의시작 한 주 전에 드렸는데 며칠전에 이 메뉴가 추가가 됐더라구요. 어쨌거나 반영하신 것만큼 이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좀 의미 있는 변화로 이렇게 인식이 되고 좀 이렇게 활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헌 위원)</p>	<p>위원님 지적 이후 홈페이지 뉴스피드에 ‘경제읽기’ 카테고리를 신설(8월23일)했습니다. ‘기업기상도’의 경우 <명품리포트 맥> 프로그램의 한 코너로,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카테고리화 돼 있어 매주 새 제작물이 홈페이지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23.8월 조치></p>	‘23.8월
총 건수		2건	

라. 시청자 권익보호와 침해구제

요청 내용	조치 내용	조치일자	비고
-해당없음-			

마. 시청자평가원 선임 현황

(임기 : '23. 01. 01.~ '23. 12. 31.)

성명	생년월일	전·현직	변동사유	비고 (임기)
김홍태	1969.11.7	(현)법률사무소 심평변호사	-	18.7.1.~24.6.30
임윤주	1985.08.28	(현)이화여자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연구위원	-	21.11.01~23.10.31
안지연	1989.06.27	(현)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총무이사	-	23.02.01~25.01.31
박세진	1981.08.06	(현)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 정보사회미디어학과 조교수	-	23.06.01~25.05.31

3. 시청자위원회 운영 효율성

평가기준	해당여부
시청자불만, 시청자평가원 의견, 방심위 조치 등 활용 여부 ※ 활용 시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 내용에 대한 답변' 실적표에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 필수	○
토의안건 사전공지 및 상시적 의견 개진 창구 운영 (사전 검토를 위한 위원 게시판, 단체 채팅방 운영 등)	○

4. 기타사항

가. 시청자위원회 회의록 공개 사항

- 연합뉴스TV 홈페이지에 공개

나. 시청자위원 명단

(임기 : '23. 1. 1.~ '23. 12. 31.)

구분	성명	전·현직	추천단체	추천부문	비고
위원장	손영준	현)국민대학교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전)국회 언론제도 개선위원회 위원장	한국방송학회	언론 학술	
부위원장	안호림	현)인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전)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 학회 편집위원	성정문화재단	문화	
위원	허인순	현)한국여성경제인협회 특별부회장 전)한진엔지니어링 설립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여성	
위원	김희중	현)중소기업중앙회 편집국장 전)중소기업중앙회 정책총괄실장	중소기업중앙회	경제	
위원	서신석	현)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사무총장 전)한국유비쿼터스협회 부회장	전국학교운영위원연합회	학부모 단체	
위원	강건기	현)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전)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 단체	
위원	진한수	현)법률사무소 익선 대표변호사 전)서초경찰서 상담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 단체	
위원	안성희	현)선진노무법인 부대표 전)서울특별시 마을노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노동 단체	
위원	이상헌	현)대한상공회의소 규제샌드박스실장 전)대한상공회의소 규제혁신 팀장	대한상공회의소	경제	
위원	이성우	현)한국사회복지협의회 대외협력실 과장 전)한국경제협업협회 자문위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장애인 등 소외단체	
변 동 사 항					

당월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에 대한 답변

구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여러 번 지적한 바가 있지만 연합뉴스TV를 보면 사회 중요 문제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연합뉴스TV는 신속성과 속보성에 따라 사건을 구성하는 팩트 보도에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출입처 사람들의 말이나 보도 자료가 팩트의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출입처는 팩트를 말해 주지만, 그 이슈에 관한 진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출입처는 자기에게 유리한 팩트를 제공할 가능성이	이슈에 대한 진실을 전하는 건 사실 저희 숙제입니다. 그냥 단순히 사실과 현상을 나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1차적인 보도입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궁극적인 보도는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자들이 즉각 그 진실 여부를 판별할 수 없는 사안, 그런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회사의 총체적인 능력의 부족에서 기인한 면도 있습니다. 인력이 빠듯하고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높습니다. 따라서 출입처가 제공한 사실을 검증(verification)할 의무가 언론에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주장이 난무하고, 사실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시대에는 주장과 사실 간의 관련성과 체계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명하게 정리해 주는 품격 있는 저널리즘이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뉴스TV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볼 수 있도록 저널리즘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회사에서도 더 많은 투자에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손영준 위원장)	하다 보니까 한 기자가 사안을 그렇게 심층적으로 파고들기 어려운 그런 구조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있지만 저희가 여건 탓만 할 수는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주어진 여건 하에서도 진실을 제시할 수 있는 보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9월 3일 07:02 정치 분야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신 관련 보도 중 "땡깡"이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일 본식 단어라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서 어떤 단어를 쓸수 있을까 보니까 땡깡 대신 생떼 이런 말들로 한글 용어를 사용하면 어떨까 합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땡깡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네요. 생떼라든가 억지라든가 이런 좀 순화된 한글 용어도 있는데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p>보도 *시청자 불만활용</p>	9월 4일 저녁6시에 연합뉴스TV수어 통역사가 나오는데 사실 이걸 좀 알아서 통역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보면서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수어 통역사 문제는 저희가 그동안 해오던 화면 배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자막이 없을 때는 수어 통역사가 길게 나오기도 하고 자막이 있으면 그 부분이 가려지니까 상반신만 다 타이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앉아서 수어통역을 하면 자막이 빠질 때 하반신까지 노출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장시간 수어통역을 하면 아무래도 힘드니까 화면 배치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시청자 불만활용	0905 뉴스센터 13 젊을수록X 젊을수록O, 0908 뉴스17 장하원 디스커버리 대표 구속 기로...영자심사X 영장심사O, 이러한 자막오타는 방송에 대한 신뢰성이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으며 그래서 채널을 돌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안호림 부위원장)	보겠습니다. 오타 문제는 아무래도 저희가 보도채널이다 보니 자막 수가 절대적으로 많아서 생기는 문제이기도 하고 또 주로 생방송을 하다 보니 자막을 신속하게 입력을 시키는데 그때그때 데스크를 보는 사람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력 부족에서 기인하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지금 구조로는 100% 완벽하기는 어려운데요. 그래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교조와 녹색병원이 교사 3,500여 명의 마음 건강을 조사한 결과, 교사 38.3%가 심한 우울 증상을 보였는데, 일반 성인의 8~10%가 심한 우울 증상을 겪는 것에 비해 높은 것입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개정 이 되지 않으면 대책을 내놓아도 실효성이 없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정당한 학생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법 적용을 면해주는 게 교권 강화 입법의 핵심이라고 꼽는데, 이주호 부총리는 국회와 함께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사랑의 매 등 선생님들에 대한 교권은 사교육이 공교육을 무기력화 시킨 어느 순간부터 땅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현재 아동학대법과 교육현장의 상충적인 법안 예시 및 향후 입법화 시 고려되어야 할 내용 등 기사 제목처럼 교사들의 극단선택 및 우울증을 최소화할 구체적인 대책에 대한 좀 더 심층 취재 및	교권 추락과 관련한 교사들의 극단 선택은 현재도 진행되는 이슈인만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심층 취재하겠습니다.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보도 요청드립니다.(허인순 위원)				
보도	[현장잇슈] 서울 한복판 40년 만에 문 열린 '비밀 지하 공간' 가봤더니... 시민들이 몰랐던 서울 도심지의 비밀 터널을 소개해 준 점은 새로웠습니다. 옥의 티라면 취재기자의 하트모양 안경이 상황과는 동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재밌게 구성하고자 하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어린이 프로그램 느낌이 들었습니다.(허인순 위원)	'현장 잇슈'에서 말씀하신대로 갑자기 뒷부분에 나비 모양의 안경 쓰고 나오더라고요. 저도 왜 갑자기 쓰고 나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소품을 쓰더라도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		
보도	뉴스타파가 녹취록 원문 전체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씨의 발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 보도하는데 한계는 있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사실 확인이 어려운 타사 기사 인용 보도는 언론의 오랜 관행일 수도 있을 것임. 모든 언론이 다 다룬 주요 뉴스를 사실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연합뉴스TV가 보도하지 않는다면 보도 경쟁에서 뒤쳐질 수 있다는 인식도 깔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함. 어떤 이유에서라도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타사 기사를 연합뉴스TV가 인용 보도해 결과적으로 오보를 냈고,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준 것이 사실임. 따라서 향후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인용 뉴스에 대한 취재 가이드라인 마련과 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함.(김희중 위원)	사실 확인이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인용 보도한 게 확인됐고, 뉴스타파 보도가 조작 사실이 거의 드러난 상황이어서 저희가 공식 사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두 차례 사과방송을 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하루 동안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그동안 타 매체를 옥석 가리지 않고 너무 쉽게 인용 보도하던 관행이 이번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해도 잘못된 경우에는 결국 책임은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저희가 취재한 것과 똑같이 정확하게 팩트체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미비했습니다. 사과방송 직후 팩트체크 시스템을 정비했습니다. 게이트 키핑 체계를 어떻게 할지 그 내규를 마련해서 어제 저희가 보도국에 공개를 했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또 타사 인용 보도와 관련된 내규도 만들어서 어제 같이 게재하고 시행했습니다.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보도	연합뉴스TV '단독 보도' 사회 분야에서 두각... 다만 정치권과 정부 등 비판과 견제가 필요한 타 분야에서도 비중 있는 '단독' 많이 나와야, 최근 3개월	사회부 이슈팀의 단독기사가 많고 다른 출입처에는 단독이 적은 이유는 물론 이슈팀이 열심히 하는데 따른 것은 당연한 얘기이구요. 출입처가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간 연합뉴스TV에서 '단독보도'한 내용을 살펴보니 대체로 마약과 사건·사고 등 사회 분야에서 매우 두각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함. 다만, 언론이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그릇된 것을 고발하고 대책을 만들도록 견제해야 할 취재원인 정치권과 정부 부처, 공공기관 관련 단독보도는 다양하게 찾아보기 어려워 아쉬움도 있었음. 단독보도의 분야를 다양화하고 뉴스성이 강한 단독보도 콘텐츠를 발굴해 보도함으로써 연합뉴스TV에 대한 뉴스시청률 제고로 이어지길 바람.(김희중 위원)	공급하는 기사의 적고 많음에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부, 특히 경찰 출입 같은 경우는 특성상 사회 현상을 발로 뛰며 발굴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독 기사가 자주 나오는 현상이 있구요. 정당이라든가 부처, 공공기관 이런 곳은 상대적으로 관급 기사가 많죠. 자체적으로 출입처에서 공급해 주는 기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 인력으로는 그 공급해 주는 기사를 적절하게 소화하는 것도 벅찬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당 출입처의 문제점을 발굴해서 보도하는 게 좀 적은데요. 언론에 가장 기본이 되고 우선이 되는 기능이 견제 기능 아니겠습니까? 본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보도	9월8일 [썬속뉴스] '영웅이 전용 번호'... 임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전담 콜센터 등장, 썬속뉴스의 취지에 맞지 않는 임영웅의 10월 콘서트 홍보 광고로 보인다. 스타급 연예인 등을 등장시켜 클릭수를 높이기보다는 scene (썬)속 뉴스 기획 취지에 맞는 좋은 기획으로 클릭수를 올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서신석 위원)	광고성은 전혀 아니고 임영웅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커서 많이 봅니다. 그리고 그게 광고성이 안 되는 게 임영웅은 원래 예매 딱 시작되면 1분 안에 티켓이 매진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광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도 앞으로는 이런 오해 받을 아이템은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		
보도	8월18일 [다다를인터뷰] "'동료 경찰 안전 위한 지원 근무가 '출동 수당 부당 수령'이라뇨" 청소년들이 꿈을 실현하고 사회의 모순을 알리고 또한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도전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는 좋은 기획 보도였다고 생각한다. 다다를인터뷰가 기획의도에 맞는 사건과 사회적 이슈	'다다를 인터뷰' 격려해 주셨는데요. 다다를 인터뷰를 주로 하고 있는 박현우 기자가 아주 발군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뿐만 아니라 본 방송에까지 채택돼서 방송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관련해서 회사에서 수여하는 상도 받았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칭찬 격려 잘 전달해서 더 열심히 할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인물들을 대상으로 연합뉴스TV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리고 교훈을 주며 시청자가 찐 팬이 될 수 있는 인터뷰 보도가 계속 되었으면 한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매주 일요일 정오에 방송하는 대한민국 곳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풍경과 명소, 맛집, 지역 특산물을 찾아 소개하는 다큐 여행 프로그램으로 주말에 편안하게 시청하고, 좋은 정보를 얻는 데 많은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특히, 해설하는 박선영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신뢰감과 생생한 명소, 풍경과 어울려서 활기를 느끼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의 진행방식은 지역별 명소의 풍경을 여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군침을 돌게 하는 맛집 소개, 방문객들의 자연스러운 여행 모습, 음식을 먹는 모습을 카메라에 함께 담으면서 소탈하게 방문객들의 소감을 듣는 식으로 진행하여 시청할 때 편안함을 느끼게 해서 좋습니다. 특히, 방송시간이 15분 내외로 시청하는 데 집중도 되고 부담이 없어 좋았습니다.(강건기 위원)	연중기획 공동프로젝트 '하모니'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모니'는 한국에 정착한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대적으로 언어소통이 어렵고 낯선 문화지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가족과 함께 진정한 우리의 이웃이 되어가는 과정을 따뜻하게 담아내겠습니다.	○		
보도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방송하는 연중기획 공동 프로젝트 '하모니'를 시청하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낯선 한국이라는 나라에 정착해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다문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입니다.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주인공의 생활과 일상을 보여주는 식으로 아나운서가 자연스럽게 해	'풍경여지도'에 관심을 갖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제작하지만 저희로서는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프로그램입니다. 위원님께서 좋게 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욱 더 시청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내용으로 편안함을 드리는 동시에 정보 충족 욕구도 만족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도록 한층 매진하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설하여 주인공에 대해 더 친숙함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문화를 확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강건기 위원)	겠습니다.			
보도	'외톨이형 범죄' 늘어...고립청년 불려 내려면, 해당 보도는 보도 과정에서 '전국의 고립청소년 20-30만 명 추산'이라는 시각자료가 활용되는데 '청년'을 언급하다가 '청소년'이 언급되어 있는 시각자료에서 시청자들이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30만 명으로 추산된 청소년 또는 청년의 나이 대와 산정방식을 추가로 설명하거나 시각자료에 같이 표기하였다면 시청자들이 보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본이 법을 고쳐서 이른바 '히키코모리'들에게 어떠한 복지정책을 제공했는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아쉬웠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대책마련을 강조하기 위한 언급이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면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를 더 크게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진한수 위원)	해당 리포트가 한 편이다 보니까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조금 제한적이라는 부분 이해를 바랍니다. 말씀하신 그래픽 내용 중에서 어떤 건 청년으로 돼 있고 어떤 건 청소년으로 돼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인용한 통계자료에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습니다. 기준이 크게 다르지 않은 거라면 청소년, 청년을 통일시키는 게 시청자를 위해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히키코모리를 복지 수혜자로 지정한 법을 제정하면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짚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짧은 리포트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범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저희가 조금 더 분량이 긴 취재물에 담아서 그런 부분까지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도	"비정규직 여성 5명 중 2명 성희롱 경험" (9/3), 오는 14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발생 1년을 앞두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신당역 살인 사건 발생 1년을 앞두고 설문조사를 한 건데. 저도 가급적이면 스토킹 관련 제목을 뽑고 그 위주로 보도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제목이 비정규직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p>시기적으로 적절하고 전체 응답자 26%가 성희롱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에 비해 비정규직 여성의 경우 38.4%로 그 비율이 높았다는 점을 전달하고 있어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도 분량이 너무 적어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더 찾아보게 되었는데, 설문조사 내용 중에는 조직 내 스토킹 등(설문조사 제목 '젠더폭력 특별 설문조사')이 포함되어 있었고 설문조사의 취지와 배경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었고, 연합뉴스TV에서 본 설문조사 결과 중 '스토킹'과 관련된 내용 보도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비정규직 여성이 성희롱과 괴롭힘 등에 취약하다는 설문조사 결과는 이전에도 접한 경험이 있고 보도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서, 직장 내 구애 등 스토킹 범죄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다루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안성희 위원)</p>	<p>여성에 대한 성희롱 쪽으로 나왔는데요. 연합뉴스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아마도 연합뉴스가 단신을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스토킹 관련 설문 내용도 있었는데, 그리고 충격을 줬던 스토킹 살인 사건 발생 1년을 앞두고 여론조사했던 것인데 기왕이면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화하는 게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p>			
<p>보도</p>	<p>지하철 소동이 잦은 상황인 만큼 실제로 급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해줬더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또 위 보도 전후로 뉴스현장(9/8), 뉴스프리즘(9/9)을 통해서도 강력범죄에 대한 뉴스를 내보냈는데, 전문가의 시각과 객관적인 시각에서 강력범죄와 관련한 주제들을 다뤘습니다.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민적으로 민감해진 시기에 범죄와 관련한 이슈를 여러 각도에서 다뤘다는 것은 바람직했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앞으로도 사건사고</p>	<p>요즘 묻지마 범죄 때문에 지하철에서 오인 소동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제도 보면 서울 지하철 2호선에서 웬 괴한이 후드티를 입고서 지하철 내를 마구 사람들 부딪히면서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칼부림하는 줄 알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모두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뒤엉켜서 다치는 사건도 벌어졌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묻지마 범죄 오인 소동 때 어떻게 승객들이 행동을 해야 안전할지, 대피 요령 같은 것도 한번 저희가 리포트로 다뤄 볼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부에 얘기해서</p>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팩트 뿐만 아니라 대응과 예방, 대책 마련 등에도 무게를 두고 보도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이상헌 위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보도	중대범죄 피의자 머그샷 공개법 법사위 소위 통과(9.12), 요즘 흉악 범죄자를 체포한 시점에 수사기관이 그 범죄자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기록 사진인 '머그샷'에 대한 공개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 뉴스는 머그샷 공개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고, 법안이 특정강력 범죄와 성폭력 범죄 외에도 폭발물, 마약 범죄 등으로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고,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안에 머그샷을 공개한다는 내용을 담겼다는 단신이었습니다. 오는 21일 본회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 머그샷 공개 이슈에 대해 연합뉴스TV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뉴스현장'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공개에 대한 찬성 여론과 인격권을 감안해야 한다는 신중 의견까지 균형감 있게 잘 보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점을 분명 칭찬하고 싶습니다. 뉴스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명확히 전달해 시청자로 하여금 생각하는 계기를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대중적인 여론은 물론 전문적인 의견과 그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줌으로써 시청자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연합뉴스TV가 앞으로도 이러한 두 가지의 역할과 기능을 지	격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요 사회 이슈에 대해 여론을 환기하면서 균형과 깊이를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구 분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내용	답변내용	비 고		
			수용	참고	반론
	금처럼 계속 잘 해주시길 기대합니다.(이성우 위원)				
보도	<p>사회복지의 날 관련 뉴스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대한 아쉬움, 매년 9월 7일은 법정기념일인 사회복지의 날입니다. 지난 7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을 비롯해 대통령실과 국회의장실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이 열렸고, 이로부터 한 주 동안은 사회복지주간이라고 해서 전국 시도 및 시군구에서 사회복지의 날 관련 행사가 지자체별로 진행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크게 진행되는 법정 기념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연합뉴스 TV는 2021년 대통령의 영상 축사를 잠깐 소개된 것 외에는 지금까지 사회복지의 날 관련 뉴스가 보이질 않아 이 부분이 아쉽습니다. 공영언론으로서 취약계층 대변과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 뉴스 보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기대합니다.(이성우 위원)</p>	<p>사회복지의 날 행사 저희가 챙겼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템들이 많다 보니 못 챙겼습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챙기겠습니다.</p>	○		